

# 과학과 자유의 진화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철**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된 주제 중의 하나는 자유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규정하는지에 따라 논의가 다양해진다. 그리고 자유는 그 어떠한 경우든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만약 인간의 주체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자유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물체의 질량이나 무게, 혹은 위치에 관해서 논할 경우 그 물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아를 정의한 다음 그것에서 파생된 함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마르크스·밀, 역사적 범주·사회적 맥락에서 자유 이해

일반적으로 자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생명을 지닌 동물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욕구와의 갈등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이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자유의 여러 양상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또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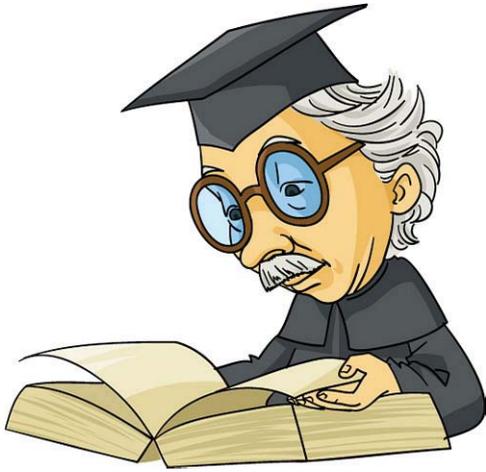
여하튼 오늘날처럼 '자유'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 시대도 별로 없을 것이다. 헤겔의 주장대로 세계사가 곧 자유의식의 진보라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문명의 발상 이래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는

시대이고,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셈이다. 헤겔은 '역사 속의 이성'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정신은 자유롭다. 바로 이러한 정신의 본질을 실현시키며, 동시에 이러한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사 속에서 세계정신이 노력한 발자취이다. 이렇듯 자각을 통하여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세계정신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 속에서 완수된다.”

그는 이어, “각기 새로운 국민정신은 세계정신이 자기의 의식과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보이는 정복의 새로운 단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보다 더욱 자유로운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헤겔을 위시하여 마르크스나 밀같은 철학자들은 주로 역사적인 범주와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유를 이해한 것 같다. 헤겔의 자유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마르크스는 “자유란 필연적으로 발전의 산물이다. 동물계에서 벗어난 최초의 인간은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물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화에서 이룩된 모든 진보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를 향한 일보였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그의 경우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확인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밀이 그의 '자유론'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으려하지 않는 한, 또 행복을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들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를 유일한 자유로 이해한 것도 결국 사회적 맥락에서 억압받지 않는 행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의 횡포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역사적 범주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유가 계속 신장될 수 있었겠는가.

베이컨이 지적했듯이 ‘아는 것이 힘’이며 여기서 아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얻어낸 힘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의 성과로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기술에 의해서 식량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추구를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못한 인간이 자연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이 뛰어난 과학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양 근대에 등장한 천문학과 물리학, 화학과 생물학, 의학 등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 등을 급격하게 변모시켰고,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산업혁명과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시민혁명이다. 그러한 급진적 변화를 과학 기술의 발달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며, 결국 마르크스나 밀이 말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자유는 생태적 자유로부터 파생된 부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과학기술시대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유

그러나 이러한 혁명을 거쳐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심지어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마저 느낄 때

가 있다. 미드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학 기술의 한계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자유의 결핍을 한탄해서 나온 지적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가.

가령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들고 도망쳐 나왔다고 하자. 주인은 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행동의 차원에서 나를 억압하고 구속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진정한 의미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다른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이든 사회든 외부로부터 오는 강제와 억압을 벗어난 자유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끓어오르는 욕정과 충동을 이긴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자유를 누리려면 권력이나 명예, 재화 등 외면적인 힘이 아니라 온갖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 힘, 즉 강한 의지력과 도덕력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능적인 충동을 이겨냈을 때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와 구분하여 ‘의지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종류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여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인과의 법칙과 상관없이 이성 명령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의지의 자유는 자연의 횡포나 제도적 폭력, 혹은 육체적 고통에 의해서도, 말하자면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인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인 것이다. 사실 철학적으로는 이러한 자유야말로 더욱 고귀한 것이며, 수도자들이 순결과 순종과 청빈을 추구하며 고행의 길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와 기술의 발달이 동시에 이러한 내면적 의지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과학기술이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을 배가시키며 우리를 쾌락의 광장으로 마구 휘몰아 감으로써 외면적 행동의 자유와 불균형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에 표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될지 모른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